걷어야할 장막, 쳐야할 장막

(예레미야 23:1~40)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 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걷어야할 장막, 쳐야할 장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걷어야할 장막, 쳐야할 장막'
중국은 등소평에 의해 70년대 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비공산권 나라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처럼 서방세계가 접근하지 못하게 중국이 고립정책을 세웠는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죽의 장막(竹—帳幕)을 쳤다"라고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동구공산권이 서구의 자유주의 진영에 대해 취한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윈스턴 처칠은 "철의 장막(Iron curtain)이다"라고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막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독일에는 베를린 장벽도 있습니다.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던 40킬로미터의 장벽은 1990년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의 교류가 고조되고 있음

에도 여전히 38선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남북이 가로막힌 상태에서는 한국은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막이 있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반목과 갈등과 질시가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장벽이 생기면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년대 한대수 가수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 소리를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 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

세상은 넓지만 좁은 눈으로 세상을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장막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장막을 걷고 창문을 열었더니 산들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장막을 걷고 나니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 수도 있고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장막을 없애고 공감의 상태를 가질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장막을 걷는 것으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장막을 올바르게 칠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걷어야 할 장막이 있고 쳐야 할 장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걷어야할 장막과 쳐야할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걷어야 하는 장막의 특징은 삶을 거짓되게 합니다. 거짓을 만들고 거짓에 파묻혀 사는 동안에는 행복과 감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죽의 장막이나 철의 장막을 예로 살펴보았듯이 이 거짓의 장막 안에 있는 한 삶은 행복할 수 없기에 걷어내야만 합니다.
1~8절은 앞서 보았던 내용에 이어서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2~25장까지 열두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1~8절이 아홉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9~40절까지는 열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설교의 내용이 전부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선민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거짓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달게 받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설교의 내용이 17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거짓 장막에 가려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장로님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이 됩니다. 마음에서는 이제 사업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의 상담이고 예언이고 설교입니다.

이 예시로 든 상황 어디에 거짓이 있다는 것일까요?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는 장로님에게 희망과 약속을 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란 말입니까? 문제는 사업하는 장로님의 마음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멸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체감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삶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한다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조차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감한다면 내 판단과 생각과 계획은 나설 곳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사업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삶의 현장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삶의 현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시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일 때에 서울 성산동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의견이 갈라졌고 성도들도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전도회장을 하고 계셨고 왕초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은 이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사업이 대박이 터지게 해달라며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갔다가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정말로 고맙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절대로 이러한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마음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삶의 현장 사이를 가로막는 장막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마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살아계신 현실로 느끼지 못하도록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에 가로막히면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삶의 현장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삶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짓의 장막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업에 대해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생각들은 거짓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거짓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된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써 묘사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차원의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에서의 하늘은 아주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는 차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인 대상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참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삶의 현장에 간섭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한 부분도 예외 없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가리는 장막을 쳤습니다. 이 거짓 장막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삶의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에 충성봉사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짓의 현장입니다. 교인도 거짓 교인이라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나갔다면 거짓 교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완악한 이유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멸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삶의 현장에서 장막이 되셔야 합니다.
베를린 장벽처럼 죽의 장막처럼 철의 장막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체로 살아가는 세상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이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부딪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독이 삶의 현장이고 마음은 동독에 있으면 베를린 장벽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남한에 있고 삶의 현장이 북한에 있다면 하나님이 38선이 되시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조차도 결국 마음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 중에서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더욱 선동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긴 걱정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거짓 교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조차 그 상황을 위로하고 앞으로는 잘 되리라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걷어내야 될 장막이 있고 반드시 쳐야할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막은 걷어내야 할 것이고, 세상을 가리는 하나님의 장막은 쳐야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조차 거짓말이 됩니다. 부부간에 오가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내가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도 생각도 다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통해서 거짓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라

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마피아 집단의 의리와도 같습니다. 범죄 집단인 마피아가 온갖 불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피아 내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목의 돈을 빼먹지 않고 정직하게 관리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모은 돈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회 안에서 두목에게 정직한 것은 악한 정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정직을 추구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옳게 들릴지라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모두 거짓에 불과합니다. 정치인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삶의 현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목사든 신부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기에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황청에 가도 행복은 없고 대형교회 목사님의 가정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교황이라는 직분도 대형교회의 교인수도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재벌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야 될 수치가 너무나 많아서 일류 대학을 나온 일류 변호사들에게 천문학적 돈을 써가면서 수치를 가리며 살아갑니다. 거짓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데모가 한창일 때에 신앙적으로 군부독재의 구조를 타파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원은 개인의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데모하지 말고 개인의 영혼구원에 치중해야 되느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장막이 쳐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구조의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타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삶에 대해 걱정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멸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멸시하는 일의 종착점은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장막이 되도록 지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세상의 삶에 빠졌던 마음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 장막 안쪽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통해 기뻐하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갖는 생각들은 통째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부분과 과제와 일정과 사건이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하면 다 거짓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만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나쳐서 세상을 향한다면 거짓만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의 장막 안쪽에서 하나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지나쳐갈 수 없습니다. 내 기쁨과 만족의 문제, 평강의 문제, 보람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끝장을 냅니다. 그러면 십자가 장막 너머에 있는 육체의 삶에 대해 더는 바랄 것이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면 자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현장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문제를 끝장내고 강단에 설 때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들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울려서 그것을 따라 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목회 현장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걷어야 될 장막은 하나님을 가리는 장막입니다.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나의 주체성이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장막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삶에 현장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리는 거짓 장막에 의해 삶은 세상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생각도 모든 말도 모든 설교도 모든 기도도 거짓말이 됩니다.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무시하고 나오는 내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주체성이 거짓 장막이 되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입으로만 부르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이 죽고 계획이 죽고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을 쌓을 때에 하나의 벽돌로는 되지 않습니다. 벽돌을 계속 이어갈 때에 담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마음과 세상을 가르는 담이 되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말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고 거짓 교인이 사라져야 하듯이 거짓 엄마, 거짓 아빠, 거짓 배우자, 거짓 사장도 사라져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행복할 것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장막을 걷어야

하고 행복을 지켜주는 장막을 쳐야만 합니다. 거짓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장막을 침으로써 행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육체 사이에서 넘지 못할 장막이 되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들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을 가리는 거짓 장막이 드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